

롤 모델의 창업자 특성차이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

이주헌 (연세대학교 글로벌창업융합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국 문 요 약

롤 모델은 개인의 직업 혹은 경력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창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롤 모델의 긍정적 영향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롤 모델로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구성원인 부모형제 및 친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만난 지인을 롤 모델로 선정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외에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 간에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 부모형제 및 친척 롤 모델을 강한 유대의 롤 모델로 지인 롤 모델을 약한 유대의 롤 모델로 구분하였다. 강한 유대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과 약한 유대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 간에 개인속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 t-검증 및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에 비해 큰 규모의 창업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셋째,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에 비해 학습지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롤 모델의 유무에 대한 영향은 성별, 학습지향성, 위험감수성, 창업규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롤 모델의 유형에 대한 영향은 학습지향성, 창업규모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창업자, 롤 모델, 학습지향성, 유대, 로지스틱 회귀분석, t-검정

1. 서론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결정은 때때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본보기가 되어 영향을 받기도 한다 (Ajzen, 1991). 또, 롤 모델은 개인의 직업 혹은 경력선택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Krumboltz et al., 1976). 창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롤 모델의 긍정적 영향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Scherer et al., 1991; Van Auken et al., 2006; 김상진·하규수, 2021). 성공한 창업자가 사회의 주목을 점점 더 받게 됨에 따라 인터넷과 공중파에서는 창업자의 인터뷰나 강연을 자주 내보내고 있다. 우리는 창업자들이 부모형제와 같은 가족뿐만 아니라 성공한 창업자들을 롤 모델 삼아 창업하게 되었다는 기사나 인터뷰를 많이 접하고 있다(조영조·이보영, 2016).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롤 모델을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에디슨이라고 밝혔고 박상호 니즈대표는 불굴의 의지로 유명한 현대 정주영을 롤 모델로 삼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Robert Merton이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 롤 모델은 사람들에게 영감이나 자극을 주어 학습 및 모방행

동을 하게 하는 삶이나 직업의 본보기가 되는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Addis, 1996). 사람들은 닮고자 하는 롤 모델을 면밀히 관찰하고 태도, 자세 및 행동을 학습, 모방하고 배워 자신의 경력과 삶을 발전시키고자 한다(Scherer et al., 1991). 따라서, 사람들은 롤 모델로 대개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나 직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인물을 선정한다(Bosma et al., 2012).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는 생전에 마이클 조던을 롤 모델로 삼았다고 했고 클린턴 대통령의 롤 모델은 케네디 대통령이었다고 한다. 물론, 롤 모델의 행동과 가치관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정적 롤 모델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Mungai & Velamuri, 2011). 하지만, 성별, 나이, 인종, 사회적 위상 등이 유사한 인물을 선택할 경우 더 영향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롤 모델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관계를 가지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TV, 라디오, 잡지 등의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롤 모델이 되기도 한다(Bosma et al., 2012). 즉, 사람들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구성원인 부모형제 및 친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미디어

* 본 연구의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해주신 조윤희(VALCSA엔젤투자클럽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저자, 연세대학교 글로벌창업융합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dardenlee@yonsei.ac.kr

· 투고일: 2023-03-14 · 수정일: 2023-04-10 · 게재확정일: 2023-04-18

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유명인 등을 롤 모델로 선정한다고 한다(임운서, 2016). 롤 모델은 특히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의 학업, 직업 및 경력선택 및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준환, 2017). 성공한 롤 모델의 태도, 자세 및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특정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성공에 필요한 역량과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한다(정수성·김도현, 2019).

창업도 롤 모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Krueger et al., 2000). 롤 모델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창업에 대한 강한 동기를 유발한다(BarNir et al., 2011). 또, 성공한 창업자를 관찰하거나 인터뷰를 듣고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과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 준다(임운서, 2016).

롤 모델과 관련된 가장 많은 실증연구는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높다는 것이다(Scott & Twomey, 1988). 하지만, 청소년의 롤 모델인 부모창업자 유무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다양한 연령 혹은 창업단계에 따른 부모창업자 유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자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다양한 대상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sma et al., 2012). 창업단계에 따라 창업자의 롤 모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Bosma et al., 2012).

Granovetter(1973)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한 유대(strong tie)와 약한 유대(weak ties)로 구분하였다. 강한 유대는 주로 혈연, 학연 등의 유사성을 기초로 형성된 애착, 이해 및 친밀도가 강한 부모, 형제, 친한 친구 등과의 관계를 말하는 반면 약한 유대는 지인 등과 같이 교류가 강하지 않고 안면 정도만 있고 친밀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컫는다. Putnam(2000)은 강한 유대와 유사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은 필요 자원과 호혜적 지원을 얻어내고 신뢰 및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약한 유대와 비슷한 연계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로부터의 정보수집, 기회인식 및 포착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정대용·박경임(2010)과 진주형·박병진(2014)은 강한 유대(가족)와 약한 유대(지인) 롤 모델이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내외 실증연구에서 창업자들의 롤 모델 유형을 조사하거나 롤 모델 유형에 따른 창업자의 특성 및 성향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Bosma et al., 2012).

청소년과 대학생들과는 달리 창업자들의 롤 모델은 어떤 사람들일까?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과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 간의 개인속성의 차이가 있을까? 또, 롤 모델의 유형차이에 따른 기업가정신(혁신성, 친취성, 위험감수성) 및 학습지향성의 차이는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아직 탐색적 연구에서 조금 더 나아간 수준이지만 본 연구는 t-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양한 창업자들의 롤 모델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롤 모델

사람들은 바람직한 롤 모델을 식별함으로써 비슷한 경력, 직업, 행동양식 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Gibson, 2004; Bosma et al., 2012). 롤 모델은 본받고 배우고 닮고자 할 만한 모범이나 귀감이 되는 사회적 준거집단을 지칭한다(Krumboltz et al., 1976). 롤 모델은 멘토와 달리 경험과 지식에서 우리나라는 조언과 지도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 존경하고 영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상과 달리 롤 모델은 노력하면 비슷한 성취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Bricheno & Thornton, 2007).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행동의 관찰이 가능할 때 학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부모, 형제, 교사, 코치, 사장 등이 롤 모델이 되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개인화된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만나기 어렵지만 유명한 사람들을 롤 모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롤 모델은 경력 및 직업선택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rumboltz et al., 1976). 롤 모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사람들은 경력 및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다(Gibson, 2004). 따라서, 긍정적인 롤 모델을 발견함으로써 해당 경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Witt, 1991).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롤 모델이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의 영향력이 클 경우 특정 경력에 대한 선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Mungai & Velamuri, 2011).

신념, 경험, 교육 등을 기초로 창업에 대한 열망에 대해 자신감 혹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때 창업자들에게 창업동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Mungai & Velamuri, 2011).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어릴 때부터 창업을 하는 부모의 행동을 보게 되고 창업환경을 접하게 된다. Shapero & Sokol(1982)에 따르면 부모와 가족은 자녀들이 창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Bandura(1977)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초기 사회화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창업과 연관된 지식, 신념, 가치, 태도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즉,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아이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창업을 선택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물질, 인적자원의 제공과 아울러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부모가 자

녀의 창업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Wyrwich, 2015). 하지만, 실증연구에서 부모의 창업이 자녀들의 창업의도나 창업행동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전의 창업경험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도 존재한다(Kim et al., 2006; Kuckertz & Wagner, 2010; Zhang et al., 2014). 또, 자녀들이 부모들의 창업기업을 계승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Zellweger et al., 2011).

2.2.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 내에서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 내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의 성격과 내용은 그들의 행동, 신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Podolny & Baron, 1997). 또, 사람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교환하고 자원과 자본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Inkpen & Tsang, 2005). 따라서, 성공을 목표로 하는 창업자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Anderson & Jack, 2002).

Granovetter(1973)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한 유대(strong ties)와 약한 유대(weak ties)로 구분하였다. 강한 유대는 주로 혈연, 학연 등의 유사성을 기초로 형성된 애착, 이해 및 친밀도가 강한 부모, 형제, 친한 친구 등과의 관계를 말하는 반면 약한 유대는 지인 등과 같이 교류가 강하지 않고 안면 정도만 있고 친밀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컫는다. Granovetter(1973)의 연구에 따르면 약한 유대를 통해서 취업 정보를 획득한 경우가 강한 유대를 통해서 얻은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2000)은 강한 유대와 유사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은 필요 자원과 호혜적 지원을 얻어내고 신뢰 및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약한 유대와 비슷한 연계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로부터의 정보수집, 기회인식 및 포착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정대용·박경임(2010)은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는 모두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3. 기업가정신과 학습지향성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창업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차별화된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전통적으로 창업자는 위험이 높은 창업을 하는 위험감수성이 높은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Brockhaus(1980)는 실증연구를 통해 위험감수성은 창업자의 차별화된 특성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였다. McClelland(1961)도 높은 성취를 지향하는 창업자들은

높거나 낮은 위험감수성이 아니라 중간정도의 위험감수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Schumpeter(1934)는 창조적 파괴활동을 동반한 혁신과 혁신적 창업자를 주목하였다. 혁신성은 새로운 자원, 생산방식, 기술 등을 도입해서 신시장과 신제품을 공략하는 것이다. Lumpkin & Dess(1996)는 창업자의 특징의 하나로 예측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신시장에 뛰어드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Miller(1983)는 조직활동 및 전략적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을 보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성향을 기업가지향성이라고 명명하고 구성요소로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을 제시하였다. 또, 2-30년간 수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가지향성이 신제품 개발, 혁신, 재무적 성과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가지향성을 사용한 실증연구가 연구자들로부터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개인의 기업가정신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기업가지향성의 구성요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파악함에 있어서 기업가지향성의 구성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활용하여 설문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습지향성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 및 기술정보를 확보, 공유함과 동시에 혁신을 추구하는 활동이다(Baker & Sinkula, 1999; Calantone et al., 2002). 학습지향성의 목적은 내외부 정보 및 지식의 단순 학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 및 창의적 사고를 동반한 고차원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Garvin, 1993). 따라서, 학습지향적 기업은 외부환경의 요구에 적합한 전략적 지식정보의 획득 및 공유, 혁신에 초점을 두고 활동한다(Hurley & Hult, 1998). 시장 및 기술변화에 대한 빠른 학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혁신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학습지향적인 조직의 특징인 것이다(Bouwen & Fry, 1991).

III.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롤 모델과 관련된 가장 많은 실증연구는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높다는 것이다(Scott & Twomey, 1988). Chlosta et al.(2012)가 독일에서 수행한 실증연구에서 창업자인 부모를 롤 모델로 가진 경우 창업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을 발견했다. Pablo-Lerchundi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학생들이 창업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역시 창업자 부모를 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Scherer et al., 1989).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네트워크, 학습기회, 자원 및 자본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다.

롤 모델은 사람들에게 목표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아울러 롤

모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Nir et al., 2011). 또, 롤 모델 관찰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과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학습,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창업자들에게도 자신감, 동기, 네트워크, 자원 및 자본 등의 측면에서 롤 모델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Bosma et al.(2012)에 따르면 창업 전 20%, 창업 후 10%, 그리고 창업전후 24%의 창업자들에게 롤 모델은 창업시작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Lafuente & Vaillant(2013)는 롤 모델의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이 연령이 적은 사람들이 연령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 크다고 보고하였다. Basow & Howe(1980)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대학생들이 경력선택에 있어서 여성 롤 모델 존재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Noguera et al.(2013)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창업자 롤 모델을 발견할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지원도 적게 받는다고 하였다. Bosma et al.(2012)는 실증분석을 통해 낮은 학력의 창업자들에 비해 높은 학력의 창업자들이 롤 모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경험과 롤 모델 존재 간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롤 모델 존재유무에 따른 창업자의 연령, 성별, 학력 등과 같은 개인속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1-1: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재 무)는 창업자의 개인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주형·박병진(2014)은 가족과 지인 창업자 롤 모델 노출이 모두 청년들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배병윤·이주연(2018)은 강원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주연(2022)은 글로벌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미치는 창업자 롤 모델 노출과 기업가정신 간에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Efrata et al.(2021)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창업자 롤 모델 노출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H1-2: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재 무)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Bandura(1977)는 롤 모델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학습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학습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관찰된 행동을 모방하거나 재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Gibson, 2004). 따라서, 학습을 위해서는 교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롤 모델의 존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H1-3: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재 무)는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다양한 대상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sma et al., 2012; 임윤서, 2016). 진주형·박병진(2014)은 가족 롤 모델 노출과 지인 롤 모델 노출이 모두 39세 미만의 청년들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osma et al.(2012)는 292명의 네덜란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약한 유대의 롤 모델과 달리 가족 등과 같은 강한 유대 롤 모델의 경우 멘토링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정대용·양준환(2009)은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21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한 유대만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Mungai & Velamuri(2011)는 부모의 창업에 대한 영향이 18-21세의 청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ilson et al.(2009)는 롤 모델과 연령, 성별, 산업 등의 개인속성이 일치할 경우 창업자의 모방과 학습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어떤 실증연구에 따르면 창업자 부모의 영향은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롤 모델은 새로운 지식이나 학습에 도움이 된다.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모형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식이나 학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롤 모델을 식별해야 하는 필요가 창업자들에게 생기게 된다.

H2-1: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는 창업자의 개인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Lumpkin & Dess, 1996). 혁신성은 새로운 기술, 제품, 생산방식 등을 도입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진취성은 경쟁자에 비해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개척하여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는 자세와 행동을 강조한다. 위험감수성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더라도 과감히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기업가정신이 높은 창업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할 것이고 부모형제 롤 모델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약한 유대 창업자 롤 모델을 찾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H2-2: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지향성은 단순 정보지식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향한다. 따라서, 학습지향성이 높은 창업자는 경쟁력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창업자를 롤 모델로 채택하는 성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H2-3: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는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H1-1, H1-2, H1-3, H2-1, H2-2, H2-3은 집단간 차이분석에 대한 가설들이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가설의 경우 반대적 성격을 갖는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가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H1-1: 창업자의 개인속성은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재 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재 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은 롤 모델의 존재유무(존재 유, 존재 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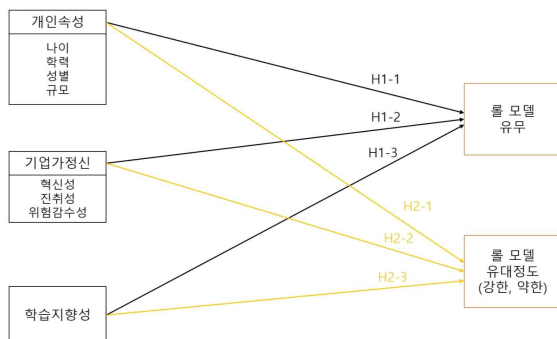
H2-1: 창업자의 개인속성은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은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설계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외에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로 구분하고 이들의 차이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또, 롤 모델을 혈연관계 중심의 강한 유대와 지인 등과 같이 교류와 친밀도가 높지 않은 약한 유대로 구분하여 창업자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들을 롤 모델의 존재유무로 구분하고 롤 모델의 존재유무가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또, 창업자들의 롤 모델을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로 구분하고 롤 모델의 유형차이가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학습지향성의 차이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롤 모델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자 부모가 자녀의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한 것이 많았다. 국내외를 통해 창업자들의 다양한 롤 모델을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롤 모델의 유형차이에 따른 창업의도나 기업성과 등에 영향을 검증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t-검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개인속성 이외에 기업가정신 및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 변수를 선정한 이유는 창업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t-검정을 실시하여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 간의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 t-검증을 통해 강한 유대 창업자 롤 모델과 약한 유대 창업자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및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다음 단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창업자들의 롤 모델 존재유무와 롤 모델 유형차이에 따른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및 학습지향성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3.3.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들의 롤 모델을 살펴보고 롤 모델의 존재유무 혹은 유형차이에 따라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검증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엔젤투자협회에 경영컨설팅 혹은 엔젤투자를 받기 위해 창업지도사와 엔젤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00명을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미리 접촉한 다음 수시로 설문을 독려한 결과 총 180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각 설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의 설문문항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설문지 문항내용

연구 변수	측정문항	참고문헌
혁신성	모든 상황에 혁신적이고 독창적으로 행동함 업무에 혁신적 아이디어와 개선점을 찾음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경영스타일을 가짐	Covin & Slevin(1989), 유훈호(2008)
진취성	기존방법보다 새로운 해결책을 강조함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진취적 행동을 권장함 현재보다 미래기회를 생각하는 진취적 성향을 가짐	
위험감수성	위험성이 있지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호함 위험성은 있지만 과감하고 용감한 행동이 필수적인 고성장이고 위험성 높은 사업을 더 선호함	
학습지향성	학습을 지출이라기보다 투자로 인식함 실수로부터 학습하기 위해 노력함 난해하더라도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함 학습을 중단하면 기업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인식함	Kohli & Jaworski(1990), Narver & Slater(1990)

IV.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설문대상을 살펴보면 총 180명의 창업자들 중 고졸 및 전문대졸(대학교 중퇴포함)이 26명(14.4%)에 불과한 반면 대졸이 63명(35.0%), 석사 이상이 91명(50.6%)으로 전반적으로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30대가 56명(31.1%), 40대 91명(50.6%), 50대 이상이 33명(18.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여성이 24명(13.3%)이고 남성이 156명(86.7%)으로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규모를 살펴보면 직원이 없는 단독창업이 35명(19.4%), 직원 5명 이하가 75명(41.7%), 직원 10명 이하가 31명(17.2%), 직원 11명 이상이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량

창업자 (롤모델)	전체	강한 유대 (부모형제, 친척)	약한 유대(지인)	없음 (자신)
표본수	180	16	150	14
여성	24(13.3%)	3(18.8%)	15(10%)	6(42.9%)
남성	156(86.7%)	13(81.2%)	135(90%)	8(57.1%)
연령				
2-30대	56(31.1%)	9(56.3%)	43(28.7%)	4(28.6%)
40대	91(50.6%)	3(18.8%)	79(52.7%)	9(64.3%)
50대이상	33(18.3%)	4(25%)	28(18.7%)	1(7.1%)
학력				
전문대졸이하	26(14.4%)	3(18.8%)	18(12%)	5(35.7%)
대졸	63(35.0%)	4(25%)	57(38%)	2(14.3%)
석사이상	91(50.6%)	9(56.3%)	75(50%)	7(50%)
창업규모				
단독	35(19.4%)	6(37.5%)	27(18%)	2(14.3%)
2-6명	75(41.7%)	6(37.5%)	59(39.3%)	10(71.5%)
7-11명	31(17.2%)	2(12.5%)	28(18.7%)	1(7.1%)
12명이상	39(21.7%)	2(12.5%)	36(24%)	1(7.1%)

롤 모델에 따른 창업자들의 개인속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설문대상 180명 중 강한 유대(부모형제, 친척)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는 16명, 약한 유대(지인)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는 150명, 자신 이외에 없다고 응답한 창업자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엔젤투자협회를 통해 추가투자자와 경영컨설팅을 받아 성장 단계를 준비하는 창업자들을 주로 설문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2-30대 창업자의 비율은 56.3%이었지만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2-30대 창업자의 비율은 28.7%로 조사되었다. 또,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단독창업자의 비율은 37.5%인 것에 비해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단독창업자의 비율은 18%로 19.5%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1-5명, 5-10명, 11명 이상인 창업규모의 경우 강한 유대의 창업자의 비율은 37.5%, 12.5%, 12.5%로 약한 유대의 창업자의 비율은 39.3%, 18.7%, 24%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여성창업자의 비율은 18.8%로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여성창업자의 비율 10%와 10%미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롤 모델이 없는 여성창업자의 비율은 42.9%로 전체 여성창업자 비율 13.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지적된 것처럼 롤 모델로 삼을만한 여성창업자를 찾기 어려운 창업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4.2.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이외에 잠재적 변수인 기업가정신 요인들(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및 학습지향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설문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Varimax)회전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t-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사용할 요인변수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 요인들과 학습지향성을 추출하였고 이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요인부하량				공통성	크론바흐 알파
		학습 지향성	위험 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혁신성	혁신성1	.057	.124	.717	.303	.624	.750
	혁신성2	.228	-.027	.777	.274	.732	
	혁신성3	.173	.241	.814	-.038	.752	
진취성	진취성1	.140	.139	.234	.774	.642	.713
	진취성2	.107	.343	.071	.576	.746	
	진취성3	.151	.110	.175	.793	.548	

위험감수성	위험감수1	.004	.847	.079	.166	.752	.751
	위험감수2	.206	.715	.163	.158	.605	
	위험감수3	.119	.779	.065	.150	.647	
학습지향성	학습성1	.802	.140	.060	.125	.680	.817
	학습성2	.679	.017	.283	.279	.630	
	학습성3	.704	.113	.287	.217	.635	
	학습성4	.877	.123	.012	-.032	.805	
아이겐 값		4.684	1.698	1.386	1.005		
총누적분산(%)		36.028	49.086	59.750	67.479		
KMO=.799, Bartlett 구형성검정 = 860.695(<.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KMO측도가 0.79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검정 카이제곱 값도 860.695($p<.001$)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영가설이 기각되는 것을 확인하여 실증자료가 요인분석 자료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총 누적분산은 67.479%로 일반적 기준인 6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4개 요인을 추출했는데 모두 아이겐 값이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도 모두 사회과학 일반적 기준치인 0.5를 상회하고 있고 요인적재값도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요인도 기준치인 0.4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750, 0.713, 0.751, 0.817로 모두 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기업가정신 요인들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간에는 1% 유의수준에서 +0.313-0.477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향성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간에 1% 유의수준에서 +0.300-0.414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학습 지향성
혁신성	1			
진취성	.453**	1		
위험감수성	.313**	.477**	1	
학습지향성	.414**	.401**	.300**	1

* $p < 0.05$, ** $p < 0.01$

4.3. t-검정

t-검정은 표본에서 추정된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두 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하는 분석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령, 학력, 규모, 성별의 개인속성과 아울러 설문지에서 추출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8개 영역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롤 모델의 존재유무에 따른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및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t-검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 롤 모델 존재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무	평균	표준편차	F	p	t값
나이	무	2.71	.726	1.210	.791	-.265
	유	2.78	.948			
학력	무	3.21	1.051	1.151	.491	-.690
	유	3.39	.945			
규모	무	2.50	1.092	2.493	.125	-1.542
	유	3.10	1.425			
성별	무	1.42	.514	20.375	.038	2.297*
	유	1.10	.312			
혁신성	무	4.07	.601	.123	.216	1.241
	유	3.86	.621			
진취성	무	3.74	.492	1.697	.894	-.133
	유	3.76	.687			
위험감수성	무	3.10	.733	.019	.109	-1.612
	유	3.41	.703			
학습지향성	무	4.54	.587	.431	.012	2.529*
	유	4.14	.555			

나이가 2.71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100명 중 30대가 29명, 40대가 71명임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학력이 3.21이라는 것은 100명 중 평균적으로 대졸 79명, 석사 21명 정도의 학력수준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성별의 경우 1.42는 100명 중 평균적으로 42명이 여성이라는 의미로 남녀 비중이 비슷한 정도인 반면 1.10은 100명 중 평균적으로 10명이 여성으로 남성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이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에 비해 나이, 학력, 창업규모가 조금 더 높지만 t-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롤 모델 유무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결과 롤 모델이 없는 경우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이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보다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높거나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지향성은 5% 유의수준에서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가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의 학습지향성이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의 학습지향성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성창업자들의 학습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온 파생적 결과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과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

들과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의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롤 모델 유형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대	평균	표준편차	F	p	t값
나이	강한	2.50	1.09545	2.336	.210	-1.259
	약한	2.81	.92965			
학력	강한	3.31	.94648	.002	.706	-.377
	약한	3.40	.94901			
규모	강한	2.43	1.45917	.083	.049	-1.980*
	약한	3.17	1.40825			
성별	강한	1.18	.403	3.843	.287	1.067
	약한	1.10	.301			
혁신성	강한	3.63	.40139	3.659	.116	-1.582
	약한	3.88	.63591			
진취성	강한	3.50	.67769	.001	.107	-1.620
	약한	3.79	.68384			
위험감수성	강한	3.17	.84327	.659	.143	-1.472
	약한	3.44	.68448			
학습지향성	강한	3.64	.48278	.142	.000	-3.973**
	약한	4.20	.53688			

나이가 2.50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30대와 40대가 반반정 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2.81은 평균적으로 100명 중 30대가 19명, 40대가 81명이라는 것을 말한다. 학력이 3.31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대졸이 69명, 석사가 31명인 학력수준을 의미하고 3.40은 평균적으로 대졸이 60명, 석사가 40명인 학력수준을 말한다. 성별의 경우 1.18과 1.10은 100명 중 평균 18명이 여성, 10명이 여성인 것을 의미한다.

비록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보다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의 나이, 학력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규모의 경우($t=-1.980, p=.049<.05$) 5% 유의수준에서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강한 유대이외의 롤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보다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지향성 ($t=-3.973, p=.000<.01$)은 1% 유의수준에서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지향성이 높은 창업자들이 부모형제나 친척 이외의 롤 모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4.4 로지스틱 회귀분석

창업자의 롤 모델 유무에 미치는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표 7> 롤 모델 유무를 설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구분	제1단계: 개인속성				제2단계: 잠재변수			
	B	Wald	p	Exp(B)	B	Wald	p	Exp(B)
상수항	3.57	5.38	.02	35.67	8.06	6.73	.01	3165.35
나이	-.09	.08	.78	.91				
학력	.13	.21	.65	1.14				
규모	.39	2.82	.09	1.48				
성별	-1.91	9.53	.00	.15				
혁신성					-.41	.73	.39	.67
진취성					.28	.39	.53	1.32
위험감수성					1.02	4.89	.03	2.76
학습지향성					-1.91	6.82	.01	.148
Hosmer & Lemeshow 카이제곱(p)	5.076(.746)				6.303(.613)			
Nagelkerke R제곱	.148				.179			

먼저, 종속변수로 롤 모델의 유무를 두고 창업자들의 나이, 학력, 창업규모, 성별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Hosmer & Lemeshow 카이제곱 값이 5.076, 유의확률 .746으로 기준인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투입변수들 중 통계수준 1%에서 성별(Wald=9.53 ($p=.00$))이 그리고 통계수준 10%에서 규모(Wald=2.82($p=.09$))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결과 롤 모델 유무에 따라 창업규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창업규모가 롤 모델 유무에 통계수준 10%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의 창업규모가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의 창업규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t-검정에서 롤 모델 유무에 따라 창업규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롤 모델이 없는 여성창업자들의 창업규모가 큰 관계로 생긴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로 롤 모델의 유무를 두고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학습지향성을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Hosmer & Lemeshow 카이제곱 값이 6.303, 유의확률

.613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변수들 중 위험감수성과 학습지향성이 유의확률 5% 미만으로 롤 모델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에서 롤 모델 유무에 따라 창업자들의 위험감수성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험감수성이 롤 모델 유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습지향성이 높은 창업자들의 위험감수성이 다소 낮은 결과로 파생된 결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지향성은 1% 수준에서 유의하고 Exp(B)가 .148로 1 미만으로 롤 모델 유무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창업자들의 학습지향성이 1단위 증가할 때 0.148배 정도로 롤 모델 존재할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t-검정 결과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의 학습지향성이 낮을 수 있지만 여성창업자들의 학습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파생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8> 롤 모델 유형을 설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단계	제1단계: 개인속성				제2단계: 잠재변수			
	B	Wald	p	Exp(B)	B	Wald	p	Exp(B)
강한 유대-0 약한 유대-1								
상수항	1.47	1.04	.31	4.33	-4.25	3.88	.05	.01
나이	.24	.70	.41	1.27				
학력	.02	.01	.94	1.02				
규모	.39	3.52	.06	1.47				
성별	-.90	1.52	.22	.408				
혁신성					.06	.01	.91	1.07
진취성					-.03	.00	.96	.97
위험감수성					.10	.04	.85	1.10
학습지향성					1.53	8.20	.00	4.60
Hosmer & Lemeshow 카이제곱(p)	7.933(.440)				3.151(.925)			
Nagelkerke R제곱	.078				.159			

창업자의 롤 모델의 유형을 설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로 롤 모델의 유형을 두고 창업자들의 나이, 학력, 창업규모, 성별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8> 좌측에 나타나 있다. Hosmer & Lemeshow 적합도 검정결과 카이제곱은 7.933 유의확률이 .440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투입변수들 중 규모(Wald=3.52(p=.06))만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p(B) 값을 해석하면 창업규모가 1단위 증가할 때 창업자들의 롤 모델이 약한 유대일 가능성이 1.47배 정도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를 롤 모델의 유형으로 두고 창업자들의 기업가치형성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학습지향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8> 우측에 나타나 있다. Hosmer & Lemeshow 카이제곱을 살펴볼 때 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투입변수들 중에서 학습지향성(Wald=8.20 (p=.00))만 유의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p(B)의 변수 값으로 해석하면 학습지향성이 1단위 증가할 때 창업자들의 롤 모델이 약한 유대일 가능성이 4.60배 정도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V. 결론

롤 모델은 개인의 직업 혹은 경력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창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롤 모델의 긍정적 영향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롤 모델로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구성원인 부모형제 및 친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만난 지인을 롤 모델로 선정한다고 한다.

롤 모델과 관련된 가장 많은 실증연구는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다양한 대상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novetter(1973)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약한 유대를 통해서 취업정보를 획득한 경우가 강한 유대를 통해 얻은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용·양준환(2009)의 중소기업 대상 실증연구에 따르면 약한 유대만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Bosma et al.(2012)는 약한 유대의 롤 모델만 멘토링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청소년과 대학생들과는 달리 창업자들의 롤 모델은 어떤 사람들일까?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자신 이외에 없는 창업자들 간에 개인 속성의 차이가 있을까? 또, 롤 모델의 유무에 따른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학습지향성의 차이는 있을까?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과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 간의 개인속성의 차이가 있을까? 또,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 차이에 따른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학습지향성의 차이는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 이외에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들과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 간에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 부모형제 및 친척 롤 모델을 강한 유대의 롤 모델로 지인 롤 모델을 약한 유대의 롤 모델로 구분하였다. 강한 유대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과 약한 유대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 간에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 t-검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엔젤투자협회에 투자유치 혹은 경영컨설팅을 신청한 성장단계를 준비하는 180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 중 강한 유대(부모형제, 친척)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는 16명, 약한 유대(지인)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는 150명, 자신 이외에 없다고 응답한 창업자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와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Bosma et al.(2012)의 일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4%인 159명만이 롤 모델이 있고 이들 중 22%가 강한 유대(부모형제, 친척)의 롤 모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성장지향적 창업자들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혹은 일반 창업자들에 비해 훨씬 더 롤 모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혹은 일반 창업자들에 비해 부모형제 및 친척의 영향에서 벗어나 외부의 지인을 롤 모델로 선정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들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offmann et al.(2015)은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딸에게는 어머니가 가장 영향력 있는 롤 모델이라고 하였다. 또, Heckert et al.(2002)은 같은 성별로부터 제공된 경력이나 직업관련 정보를 신뢰하고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롤 모델로 삼을만한 여성 창업자를 찾기 어려운 창업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t-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의 창업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롤 모델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창업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대한 필요가 증대하고 이를 채워줄 수 있는 롤 모델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에서 벗어나 약한 유대의 롤 모델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이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진 창업자들에 비해 학습지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지향성이 높은 창업자일수록 강한 유대의 롤 모델을 탈피해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롤 모델의 유무에 대한 영향은 성별, 학습지향성, 위험감수성, 창업규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에 대한 영향은 학습지향성, 창업규모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p(B)의 변수 값으로 해석하면 학습지향성 1단위가 증가할 때 창업자가 강한 유대의 롤 모델 대신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을 가질 확률은 5.93배 증가한다.

t-검정에 따르면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에 비해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의 기업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의 기업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t-검정에서는 롤 모델 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별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 t-검정에서 롤 모델 유무에 따른 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학습지향성이 높은 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이 낮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롤 모델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일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지향적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롤 모델을 실증 분석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대부분 실증연구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 요인들(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학습지향성에 대한 영향을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롤 모델 유무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유대, 약한 유대)에 따른 창업자 개인속성, 기업가정신 요인들 및 학습지향성을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창업자 롤 모델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창업 활성화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창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롤 모델을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약한 유대의 롤 모델이 있는 창업자의 학습지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창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한 유대의 롤 모델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엔젤투자협회를 통해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와 경영자문을 요청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창업자들을 대표한다고 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창업자들의 롤 모델을 조사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자료를 수집한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고 창업자들의 인식과 환경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롤 모델을 위한 전문화된 실증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롤 모델 선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없었다. 넷째, 표본의 크기는 통계적 신뢰성과 검정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롤 모델이 없는 창업자가 14명, 강한 유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창업자가 16명뿐으로 결코 표본의 정규성 및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 해석과 활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보다 많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창업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확보한 롤 모델에 대한 전문화된 후속연구가 무척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

김상진·하규수(2021). 디지털 역량과 개인적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롤 모델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5), 125-141.

배병윤·이주현(2018).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전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6), 63-74.

양준환(2017). 창업역할모델과 기업가정신교육이 한국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2), 1-11.

유봉호(2008).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에 기업가지향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시장지향성의 선행변수인 정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대학원.

이주연(2022). 창의성이 개인기업가지향성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5(11), 2217-2240.

임윤서(2016).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역할 모델의 우연 경험 연구: 청년 기업가의 경력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329-363.

정대용·박경임(2010).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도를 매개로 창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12), 4780-4786.

정대용·양준환(2009). 중소기업의 네트워크가 지각된 기업성공에 미치는 관계 모형에 관한 실증 분석. *인적자원개발연구*, 12(1), 1-26.

정수성·김도현(2019). 군복무 경험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5), 141-157.

조영조·이보영(2016). 사회적 환경이 대학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17-25.

진주형·박병진(2014). 역할모델 노출이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6(4), 101-123.

Addis, A.(1996). Role Models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44(4), 1377-1468.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nderson, A. R., & Jack, S.(2002). The Articulation of Social Capital in Entrepreneurial Networks: A Glue or A Lubricant.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4(3), 193-210.

Bae, B. Y., & Lee, J. H.(2018).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6), 63-74.

Baker, W. E., & Sinkula, J. M.(1999). The Synergistic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on Organization Performanc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7(4), 411-427.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BarNir, A., Watson, W. E., & Hutchins, H. M.(2011).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2), 270-297.

Basow, S. A., & Howe, K. G.(1980). Role-model Influence: Effect of Sex and Sex-role Attitude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4), 558-572.

Bosma, N., Hessels, J., Schutjens, V., Praag, M., & Verheul, I.(2012). Entrepreneurship and Role Model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2), 410-424.

Bricheno, P., & Thornton, M.(2007). Role Model, Hero or Champion? Children's Views Concerning Role Models. *Educational Research*, 49(4), 383-396.

Brockhaus, R. H.(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3), 509-520.

Bouwen, R., & Fry, R.(1991).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Learning: Four Patterns of Dialog between the Dominant Logic and the New Logic.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 21(4), 37-51.

Calantone, R. J., Cavusgil, S. T., & Zhao, Y.(2002). Learning Orientation, Firm Innovation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1, 515-524.

Chlosta, S., Patzelt, H., Klein, S. B., & Dormann, C.(2012). Parental Role Models and the Decision to Become Self-Employe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ity. *Small Business Economics*, 38, 121-138.

Cho, Y. J., & Lee, B. Y.(2016). A Study on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17-25.

Chung, D. Y., & Park, K. I.(2010).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 on Entrepreneurial Activities which are Mediated by Entrepreneurship.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12), 4780-4786.

Chung, D. Y., & Yang, J. H.(2009). An Empirical Analysis on Mod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ing and Perceived Firm Performances of SMEs.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2(1), 1-26.

Covin, J. G., & Slevin, D. P.(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Efrata, T. C., Radianto, W. E. D., & Effendy, J. A.(2021). The Influence of Role Model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es Individual Innovativeness Matters?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8(2), 339-352.

Garvin, D. A.(1993). Building a Learning Organiz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1(4), 378-391.

Gibson, S. K.(2004). Social Learning (Cognitive) Theory and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2), 193-210.

Granovetter, M. S.(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Heckert, T. M., Droste, H. E., Adams, P. J., Griffin, C. M., Roberts, L. L., Mueller, M. A., & Wallis, H. A.(2002). Gender Differences in Anticipated Salary: Role of

- Salary Estimates for Others, Job Characteristics. *Career Paths, and Job Inputs. Sex Roles*, 47(3-4), 139-151.
- Hoffmann, A., Junge, M., & Malchow-Moller, N.(2015). Running in the Family: Parental Role Models in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44(1), 79-104.
- Hurley, R. F., & Hult, G. T. M.(1998). Innovation, Market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Learning: An Integration and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Marketing*, 62(3), 42-54.
- Iem, Y. S.(2016). A Study on Happenstance Experience of a Role Model for a College Student's Career Choice: With Focus on Youth Entrepreneurs' Career Success Proces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4(2), 329-363.
- Inkpen, A. C., & Tsang, E. W. K.(2005). Social Capital, Networks, and Knowledge Transf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0(1), 146-165.
- Jin, J. H., & Park, B. J.(2014). The Impact of Role Mode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6(4), 101-123.
- Jung, S. S., & Kim, D. H.(2019). A Study on the Impact of Military Service Experience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141-157.
- Kim, P. H., Aldrich, H. E., & Keister, L. A.(2006). Access (Not) Denied: The Impact of Financial, Human, and Cultural Capital on Entrepreneurial Entry in the United States. *Small Business Economics*, 27(1), 5-22.
- Kim, S. J., & Ha, K. S.(2021). A Study of the Impact of Digital Capability and Personal Ability on the Intent to Continue Economic Activity: Focused on the Adjustment Effect of the Role Mode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5), 125-141.
- Kohli, A. K., & Jaworski, B. J.(1990). Market Orientation: the Construct, Research Propositions, and Managerial Implications. *Journal of Marketing*, 54(2), 1-18.
- Krueger, N., Reiley, M., & Carsrud, A.(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411-432.
- Krumboltz, J., Mitchell, A., & Jones, G.(1976).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Sele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71-80.
- Kuckertz, A., & Wagner, M.(2010). The Influence of Sustainability Orient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Investigating the Role of Business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 524-539.
- Lafuente, E. M., & Vaillant, Y.(2013). Age Driven Influence of Role-Models on Entrepreneurship in a Transition Economy.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20(1), 181-203.
- Lee, J. Y.(2022). The Effect of Creativit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via Individual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Focusing on the Moderated Mediation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5(11), 2217-2240.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New Jersey: Princeton.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ungai, E., & Velamuri, R.(2011). Parental Entrepreneurial Role Model Influence on Male Offspring: Is it Always Positive and When does it Occ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2), 337-357.
- Narver, J. C., & Slater, S. F.(1990). The Effect of a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rofitability. *Journal of Marketing*, 54(4), 20-34.
- Noguera, M., Alvarez, C., & Urbano, D.(2013). Socio-cultural Factors and Female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Management Journal*, 9(2), 183-197.
- Pablo-Lerchundi, I., Morales-Alonso, G., & Gonzalez-Tirados, R. M.(2015). Influences of Parental Occupation on Occupational Choices and Professional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8(7), 1645-1649.
- Podolny, J. M., & Baron, J. N.(1997). Resources and Relationships: Social Networks and Mobility in the Workpla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5), 673-693.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 Scherer, R. F., Adams, J. S., Carley, S. S., & Wiebe, F. A.(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3), 53-72.
- Scherer, R. F., Brondzinski, J. D., & Wiebe, F. A.(1991). Assessing Perception of Career Role-Model Performance: The Self-employed Par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2(2), 555-560.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ott, M. G., & Twomey, D. F.(1988). The Long-term Supply of Entrepreneurs: Students' Career Aspirations in Relation to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4), 5-13.
- Shapi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Kent, C. A., Sexton, D. L., & Vesper, K. H.(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72-90.
- Van Auken, H., Fry, F. L., & Stephens, P.(2006). The Influence of Role Model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1(2), 157-167.
- Wilson, F., Kickul, J., Marlino, D., Barbosa, S. D., & Griffiths, M. D.(2009). An Analysis of the Role of Gender and Self-efficacy in Developing Female Entrepreneurial Interest and Behavior. *Journal of*

-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4(2), 105-119.
- Witt, U.(1991). Economics, Sociology, and Behavioral Psychology on Preferenc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2(4), 557-573.
- Wyrwich, M.(2015). Entrepreneurship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alues. *Small Business Economics*, 45(1), 191-213.
- Yang, J. H.(2017). The Effect of Role Model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Juvenil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1-11.
- Yoo, B. H.(2008).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s of the Compan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Zellweger, T., Sieger, P., & Halter, F.(2011).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Career Choice Intentions of Students with Family Business Background.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5), 521-536.
- Zhang, Y., Duysters, G., & Cloudt, M.(2014).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Predictor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0, 623-641.

A Study on the Effects of Role Models on Differences in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Joo-Heon Lee**

Abstract

Role models are also known to influence an individual's job or career choice. The positive effect of role models on entrepreneurship has already been revealed through many precious researches. It is said that people choose not only family members who are related by blood, such as parents, siblings, and relatives, but also acquaintances whom they have met through social relationships as role models.

In this study, we divided into entrepreneurs with no role models other than themselves and entrepreneurs with role models. In addition, we classified parental siblings and relative role models as role models with strong ties, and acquaintance role models as role models with weak ties. W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sonal attribut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factors, and learning orientation between the entrepreneurs with role models and those without role models. Also, the differences in personal attributes,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risk-taking propensity, and learning orientation between the entrepreneurs with strong ties role models and those with weak ties role models were examine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women entrepreneurs without role models is higher. Second, the entrepreneurs with role models with weak ties tend to run larger scale start-up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ntrepreneurs with role models of weak ties tend to have higher learning orientation. Fourth, gender show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absence or presence of role models. Fifth, it was found that learning orientation and startup size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decision of the role model with weak ties or that with strong ties.

KeyWords: Entrepreneurs, Role Models, Learning Orientation, Ties, Logistic Regression, t-Test

* My appreciation goes to the CEO Yun-Hee Cho of VALCSA Angel Investment Club, whose hard work in collecting research data contributes to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Convergence, dardenlee@yonsei.ac.kr